

주일 낮 예배 |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요한복음4:24)

| 오전 9:00 | 오전 11:00 인도 / 김동오목사

예배의부름 인도자

■ 경배찬송 다함께

29. 성도여 다함께
당신은 영광의 왕(ccm)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기도 | 신지혜권철 || 박병기장로

성경봉독 인도자

마가복음 9:42-50

찬양 | 하나님의 그늘 아래 교사중창단

||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호산나찬양대

설교 김동오목사

"생명과 지옥"

기도 다함께

봉헌 다함께

259.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목회기도 설교자

■ 결단의찬양 다함께

무명이어도(ccm)

■ 축도 설교자

■ 경건한 마음의 표시로 일어섭니다. ■ 다음 기도 / | .천현진집사

■ 헌금은 예배 전에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 김한수장로

■ 10월 6일 / 시 26, 욘 1:1,2:1-10 히 1:1-4:2:5-12 막 10:2-16

주일 오후 찬양예배

오후 2:00 청년헌신예배 인도 / 김건청년

경배와찬양 (인도) 믿음으로찬양단

기도 신예지청년

성경봉독 에스라 3:8-13 김정호청년

찬양 그리운 예루살렘 청년일동

설교 "컬레버레이션" 김재중목사

기도 다함께

찬송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ccm) 다함께

축도 설교자

□ 다음 기도 / 8여전헌신

수요저녁예배

오후 7:15 인도 / 김재중목사

경배와찬양 (인도) 코람데오찬양단

기도 조미희집사

성경봉독 레위기 19:11-18 인도자

설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라" 김재중목사

기도 다함께

찬송 220. 사랑하는 주님 앞에 다함께

축도 설교자

□ 다음 기도 / 강철규권사

새벽기도회

새벽 5:00 인도 / 김동오목사

- 월 30일 느헤미야 13:23-31 연약한 신앙을 지키는 결혼 원칙
- 화 1일 호세아 1:1-2:1 배역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 수 2일 호세아 2:2-13 복의 근원을 잃은 무지한 백성
- 목 3일 호세아 2:14-23 연약 관계의 회복, 복된 응답의 시작
- 금 4일 호세아 3:1-5 인간 이해를 초월하는 놀라운 사랑
- 토 5일 호세아 4:1-10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죄를 멀리하게 합니다
- 일 6일 호세아 4:11-19 우상과 음행에 빠진 마음

* 새벽기도회 묵상 말씀은 Q.T 교재 <생명의 삶>(두란노) 해당 날짜 본문과 같습니다.

설교 요약

"생명과 지옥"

오늘 말씀은, 작은 사람 하나를 실족하게(걸려넘어지게/죄짓게/스καν달론) 하는 사람은 처참한 운명에 떨어진다(42)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작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를 믿는'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무시하고 실제적인 피해를 주고 박해하는 세상 사람을 향한 경고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교회 내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부자 그리스도인을 향한 경고로 볼 수도 있고요. 어찌 되었든 핵심은 '작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의 운명은 처참하다가 됩니다.

처참한 운명과 연관해 세 가지 이야기가 이어지고, 이 이야기가 좀 자 극적입니다. 손이 죄를 짓게 하면 즉, 작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손을 짚 어 버리라(43)고 합니다. 발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에 참여하면 잘라버리라(45)고 합니다. 눈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빼어버리라(47)고 합니다. 손이나 발이나 눈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자신의 생명 전체를 잃는 것보다는 그중 하나가 없더라도 생명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하십니다.

생명/하나님 나라와 지옥이 대비됩니다. 지옥이 대체 무엇입니까? 48절에서 지옥 표상을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66:24에 근거한 것 같습니다. 지옥으로 표현된 단어는 '게헨나'입니다. 게헨나는 예루살렘 남서쪽 골짜기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게 힌놈'을 음역한 지명입니다. 그곳은 몰렉 숭배의 한 형태로 인신 제사를 지낸 곳입니다. 그 광경이 끔찍하고 구역질 나는 장소여서 사람들이 그런 장면을 지옥으로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 지옥은 가장 견디기 힘들고 괴로운 어떤 사태나 현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내세에서, 지옥에 떨어질까 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 자체도 심각하지만,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가 '작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위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어 봅시다. 작은 사람을 무시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와 자기 소유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자기 안에 갇힌다는, 자기를 절대화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숭배하는데 마음이 치우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구로 여기거나 자기 삶을 스쳐 가는 엑스트라로 여기는 것입니다.

작은 사람을 무시하고 걸려넘어지게 함으로써 그 결과로 죽은 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실족하게 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구더기가 들끓는 구덩이 안으로 사생결단 뛰어드는 현상 자체가 지옥 아닙니까? 작은 사람 하나, 작은 일 하나가 생명 사건이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져야만 가능한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고후5:17). 50절에서 '소금'을 간직하라고 하십니다. 소금은 그리스도의 제자됨으로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교회 소식 |

- 청년 헌신예배 : 9월 29일(주일) 오후예배시
- 찬양연습 : 9월 29일(주일) 오후 12:40, 대예배실(3층)
- 금주 포에버예배 : 10월 4일(금)로 변경 - 10월 3일(목) 공휴일 관계로
- 지역전도 : 매주 토요일 오전 10:50, 소예배실 / 문의 : 선상이집사
- 강원칼넷 평신도지도자 세미나 : 11월 2일(토) / 가평 오륜빌리지
- 참가대상 : 향촌지, 기관장, 구역장, 교사, 찬양대, 찬양단, 위원회위원
- 신청 : 10월 6일(주일)까지 김재중목사에게 문자로 - 회비 : 1만원
- 가을 심방 원하는 구역/가정은 김재중목사에게 신청바랍니다.
- 장례 : 강병린권사 모친상 신순복집사 시모상, 9월 25일 장례모심 김관섭집사 모친상, 9월 28일 장례모심
- 커피 대접 : 김환권철
- 떡 대접 : 강병린권사 신순복집사 - 어머니 장례 마치고

▣ 성경 및 헌금 계좌 안내

- 태장성결교회 공식 성경은 [새번역성경]입니다.
성경찬송 구입 원하는 분은 예배부장 신동희권사에게 문의하세요.
- 헌금 계좌번호
입일조,감사,건축 / 농협 213-01-166145, 태장성결교회
예) 입일조 - 000입, 감사헌금 - 000감, 주일(정)헌금 - 000주
선교헌금 / 새마을금고 4315-09-005272-5, 태장성결교회(선교부)
나눔헌금 / 새마을금고 9002-1353-6796-9, 태장성결교회(나눔위)

▣ 목회계획

	9.29-10.5	10.6-12	10.13-19	10.20-26
29. 하늘평안교회 임직식	6. 8여전 헌신예배 7-8. 코칭넷 수련회 9. 나눔위 주관 지역어르신 가을소풍 11-12. 3040수련회	13. 교회사랑헌신예배 19. 교회 대청소	20. 강원지방 성결인대회 (원주중앙) 21-22. 교단 목회자세미나 24. 강원칼넷 실행위 25. 금요저녁기도회	

▣ 봉사위원

구분	9.29	10.6	10.13	10.20
차량 운행	1호 강대봉	강병린	강대봉	이철성
운행 2호	신재희			
주방	21,23,25구역	22,26,31구역	24,36,45구역	32,33,35구역
오후 돌봄	강은숙 김재욱	장영희 최옥경	설수정 이춘득	김중순 김춘자
청소(화장실)	5남전	6여전	청소년	7여전
봉 헌	1부: 9.금은정 10.신동희	2부: 9.이수병 2.조연순	10.김문배	이미라B

| 교회 안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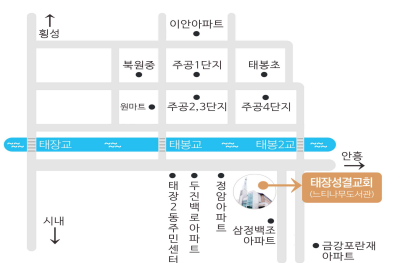
▣ 우리 교회는!

1.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 성숙한 신앙공동체를 꿈꾸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배우기를 힘씁니다.
2.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꿈꾸며, 이를 위해 교회 프로그램 전반에서 가정을 배려합니다.
3. 지역사회와 더불어 숨쉬며,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합니다.

▣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일 낮 예배 1부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월-토 오전 5:00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4금 오후 8:00
주일 오후찬양예배	오후 2:00	포에버예배	목 오후 12:00
수요저녁예배	오후 7:15	구역장교육	수 새벽/저녁
주일 영유아예배	오전 11:00	성장반훈련	화저녁 / 수오전
주일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전도모임	토 오전 10:50
주일 청소년예배	오전 11:00	구역모임	구역별 별도시간
주일 청년예배	오후 1:00	주말교회청소	기관별 별도시간

▣ 태장성결교회 가는 길



시내버스 /
3, 4, 6, 7, 41, 42번
정암아파트앞 하차

교회 버스 /
주일날, 수요, 새벽예배
차량 운행시간표 참조

▣ 섬기는 분들

- 담임 목사 : 김동오
 명예 목사 : 채수환
 부담임 목사 : 김재중
 청소년간사 : 강호길
 선교사 : 황느헤미야 임에스터 (T국)
 박예덴 베들레헴 (L국)
 최웅락 이민숙 (K국)
 박종민 이인덕 (T국)
 지영환 김희수 (V국)
 최경민 김은진 (G국)
- 사무장로 : 김인택 신재희 김한수
 원로장로 : 박병기
 명예장로 : 황호운 김성제
 은퇴장로 : 김정원
 찬양지휘 : 고재석
 반 주 : 원신희 변찬미 사공수인
 신지혜 박예강 이하민 최은선
- 협력교회 : 강원코칭넷 강원칼넷 DPA
 서울신학대학교 아이행복마을
 원주북원노인종합복지관
 원주소망주기복지센터
- 영동 주님의 주사랑
 주비전스토리 한우리

2024년 09월 29일
 (통권 제 52권 39호)
 교회설립 1973.5.20.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상처 입은 혀”

나희덕

너는 혀가 아프구나,
 어디선가 아득히 정신을 놓을 때
 자기도 모르게 깨문 것이 혀였다니
 아, 너의 말이 많이 아프구나
 무의식중애라도 하고 싶었던,
 그러나 강물처럼 흐르고 또 흘러가버린,
 그 말을 이제야 듣게 되는구나
 고단한 날이면 내 혀에도 햇바늘처럼 돋던 그 말이
 오늘은 화살로 돌아와 박히는구나
 얼마나 수많은 어리석음을 지나야
 얼마나 빠져린 비참을 지나야
 우리는 서로의 혀에 대해 이해하게 될까
 혀의 뿌리와 맞닿은 목젖에서는
 작고 검고 둥글고 고요한 목구멍에서는
 이제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
 말이 말이 아니다
 독백도 대화도 될 수 없는 것
 비명이나 신음, 또는 주문이나 기도에 가까운 것
 혀와 입술 대신
 눈이 젖은 말을 흘려 보내는 밤
 손이 마른 말을 만지며 부스럭거리는 밤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아니,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어
 이생에서 우리가 주고받을 말은 이미 끝났으니까
 그러니 네 혀가 돌아오더라도
 끝내 그 아픈 말은 들려주지 말기를
 그래도 슬퍼하지 말기를,
 끝내 하지 못한 말은 별처럼 박혀 있을 테니까

26318 원주시 흥양로102번길 4 (태장동)
 ☎. 033-742-6762, 070-5168-1770 (담목)

태장성결교회
<http://taejang.org>